

종합

확 바뀐 농업지도... 전남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

한반도 온난화 가속 농작물 재배지 북상 곡성·나주서 파파야, 고흥서 키위 생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한라봉을 비롯한 아열대 과일이 재배되는 등 '한반도 농작물 재배지'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10년이면 농작물 재배지도 변한다'는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나 재배되던 감귤이 완도와 여수, 고흥, 진도 등 전남지역 곳곳에서 재배되는 등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다. 한라봉도 고흥과 보성, 담양, 순천, 나주 등으로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의 감귤 재배 면적은 지난 1990년 5ha이었던 것이 2002년 10ha로 늘었다가 2005년에는 74ha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감귤은 제주도 특산물'이라는 것은

'옛말'이 됐다.

아열대 과일인 파파야도 과거 제주도에 서나 재배되던 것이 곡성과 나주에서 재배되는 것은 물론 충남 부여까지 재배 지역이 북상했다.

참다래(키위) 재배지도 고흥, 경남 마산, 진해까지 북상했으며, 아메모야도 고흥과 곡성에서도 재배되는 등 전남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아열대 작물이 새롭게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후변화로 전남지역 곳곳에서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는 반면 과거 나주의 특산물 이던 나주배의 재배지역은 서서히 북상하고 있다. 배 재배 면적은 전남과 경북, 충북에서는 감소하고 충남,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까지도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



에서는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10년 동안 감자, 밀, 쌀보리 등 식량 작물 3종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원예작물 5종은 전남 등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반면 경기, 강원 등은 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농작물 재배지 변화의 이유를 한반도 평균기온 상승과 연 강수량 증가 등 기후변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12.0도였으나 2000년대에는 0.3도 오른 12.3도로, 연 강수량도 1990년대 1천339mm에서 2000년대 1천470mm로 131mm 증가한 것이 농작물 재배지를 북상시켰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기후변화라는 위기의 시대에 국가 농식품 안정적 공급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맞는 대체 작물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초대형 육식 공룡알 등 신안 압해도서 발견



신안군 압해도에서 형태가 완벽하게 보존된 대형 육식 공룡알 및 동지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공룡알 화석은 목포자연사박물관(관장 함윤식)과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소장 허민)가 공동으로 추진한 서남권 일대 지질 환경 조사 도중 발견됐다.

6일 목포자연사박물관에 따르면 압해도 지질발굴 조사 현장에서 한개의 크기가 1.5m에 달하는 동지 3개와 30여개의 공룡알과 파편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공룡알은 긴 타원형 형태로 적색 이암 퇴적층에 일부가 노출된 채 발견됐으며,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동지와 알 등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보성 동지에서 원형의 초식 공룡알이 나온 적이 있고 경남 통영에서 육식 공룡알 발굴이 보고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공룡알 크기가 30~40cm에 이르고, 1m가 넘는 대형 알 동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국내에 생존했던 육식공룡의 생태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과거 중생대 시기 하나의 육지로 연결돼 있던 중국 산둥 지방을 포함한 동아시아 고환경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조완필기자 wncho@kwangju.co.kr



5일 오후 미군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텍사스 포트후드기지에서 총에 맞은 중상자를 군인들과 경찰이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권 20대 여성 등 총 48명 사망 광주시 '플루' 예산 35억 추가 확보

신종플루 감염 사망자가 48명으로 늘면서 당국이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광주 시도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로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신종플루 대책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충청권에 거주하는 2살 남자 아이와 만성질환을 앓아온 호남권의 29세 여성, 그리고 충청권의 54세 여성 등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종플루 감염으로 사망한 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어났다.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2살짜리 유아는 타임플루를 투약한 지 하루 만인 3일 숨졌고, 증상이나 최초 내원일은 확인되지 않

았다. 29세 여성은 지난달 31일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인 2일 사망했는데 이 여성은 타임플루를 처방받지 못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54세 여성은 지난달 28일 증상이 나타나 30일 타임플루를 투약했지만 다음날인 31일 숨졌다.

중대본은 이들 외에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사망자 10명(수도권 3, 강원권 1, 충청권 4, 영남권 2)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중이어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그러나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중 41명이 고위험군으로 관망돼 사망자 중 상당수는 신종플루보다는 신경계 질환이나 암 등 다른 질병에 따른 영향이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美 텍사스 군기지에서 총기난사 12명 사망

미국 텍사스주의 포트 후드 미군기지에서 5일 오후(현지시간) 총격사건이 발생해 범인 한명을 포함, 최소한 12명이 죽고 20명 이상이 다쳤다. 하지만 케이 베일리 허친슨 연방 상원의원은 부상자수가 30명 이상이라고 밝혀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SNBC 및 CNN 등 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군복을 입은 두 명이다. 이중 한명은 총에 맞아 숨졌으며, 다른 한명은 도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후드 기지의 대변인인 나선 밴크스 중령은 "첫번째 총기난사는 오후 1시30분 병사들의 평가 및 인사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무소에서 발생했으며, 두번째 총기난사는 기지 내 호우제 극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총기난사 범인은 무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설

'원안 추진' 확인된 혁신도시 추진속도 내야

이명박 대통령이 혁신도시를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축소 및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차질없는 추진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전국 10개 혁신도시 시·도 부지사 회의에서도 혁신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후 열흘도 안돼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혁신도시 정상 추진을 재천명함에 따라 혁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은 불식됐다고 봐야한다. 이제 그 누구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이 확인되면 변경할 수 없는 대국민 약속임을 정부 만큼 이전 대상기관들은 부지 매입과

청사설계 등 이전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대상 17개 기관 가운데 부지매입 계약을 한 곳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단 1곳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0개 기관은 부지매입비나 청사 설계를 확보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 기관이 혁신도시로 세종시처럼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변경할 수 없는 대국민 약속임을 정부 부처와 이전 기관들은 알아야 한다.

'용두사미 희망근로' 서민대책 시급하다

정부가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추진해왔던 '희망근로 사업'이 2년 만에 대폭 축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희망근로사업 규모는 올해 대비 40% 선으로 축소되고 사업기간 역시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대상 근로자가 1만명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희망근로 사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지역 상품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가족들이 대상자로 참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은 고령자나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최후의 버팀목이다. 내년부터 이

사업이 축소된다면 복지정책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셈이다.

당장 희망근로 사업이 중단되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가 문제다. 겨울철에는 단순노동직 같은 일자리도 구하기가 힘들데다 난방비 등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학 졸업자들이 쏟아져나오는 연말에 고용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시행 초기에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면 된다. 부작용이 많다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친서민 행보와도 맞지 않는다.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올 하반기에 두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때에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펴야 한다.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제도와 함께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분야의 단기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세종시 입주기업 토지 자유이용 서울대 제2캠퍼스 설립도 검토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대기업 유치대책의 일환으로 세종시 입주 신청 기업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가격을 대폭 깎아주고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6일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올 것"이라며 "토지를 기존 가격보다 한 값에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할당받은 토지에 대해 전권을 쥐고 개발하도록 하는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라인 관계자도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토지 저가 공급, 세제 혜택 외에도 원형지 공급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만드는 것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

는 방안, 녹색도시 모델로 조성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서울대 공과대학이 세종시에 57만평 규모의 융복합학문분야 제2캠퍼스인 '집현(集賢) 캠퍼스'를 설립하는 안을 마련해 최근 대학본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발원 이후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서울공대 이전설'까지 나온 가운데 공대 측이 제2캠퍼스 설립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대 공대 강대진 학장은 이와 관련 "7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2캠퍼스를 짓는다는 초안을 마련해 최근 총장에게 직접 구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여수불꽃경연 취소

전국적인 신종플루 확산으로 오는 27일 여수 소호트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수 세계불꽃경연대회'가 전면 취소됐다. 여수시는 6일 "정부가 국가 전염병 재난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킴

에 따라 제2회 여수세계불꽃경연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아직 여수에서는 대규모 환자 발생이 없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외지 관람객 방문으로 신종플루 확산할 우려가 있고 도시 이미지도 실추될 위험이 있다"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

빛의 만평

- 김종두



국회도 신종플루 증세가...

비자금 조성 의혹 신동아건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법 특수2부(권오성 부장감사)는 6일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아건설과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일해토건 서울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자금 흐름에 수상한 부분이 포착돼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서울 용산구 소재 이 회사의 본사와 서초구의 일해토건 서울지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들 기업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회사 경영진이 최근 수년간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공사 비용을 부풀려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집중하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분석회계로 비밀 자금을 마련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만간 경영진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3일 신동아건설 협력업체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용선 신동아건설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관련 금융계좌를 추적해왔다.

김회장은 지난 1981년 전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일해토건 대표이사를 거쳐 2001년 신동아건설을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다.

국민의 정부 때 관공공사를 수주해 급성장한 일해토건은 2001년 신동아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의 특혜가 있었는지를 놓고 시비가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일해토건이 신동아건설을 인수한 시점이 오래돼 현재로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다. 장부의 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우선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말해 당분간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濟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 2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대우부 2200-66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사 회 부 2200-571	조 사 부 2200-571
<F A 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